**극강의 공포감을 전하는 ‘호러 타임즈’!**

**충무로 새로운 호러킹-호러퀸 탄생!**

**그들의 행보에 주목하라!**

**공포 영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역대급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곤지암>이 역대 한국 공포 최고 흥행작에 등극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연기와 동시에 촬영까지 맡았던 주연 배우들이 차세대 스타 탄생을 예감케 해 화제다.**

[감독: 정범식 | 출연: 위하준, 박지현, 오아연, 문예원, 박성훈, 이승욱, 유제윤 | 제공/배급: ㈜쇼박스 | 제작: ㈜하이브 미디어코프 | 개봉: 2018년 3월 28일]

**“샤바샤바 그 빙의한 멤버 누구야?” 관심 폭발!**

**<곤지암> 호러 타임즈 멤버들 관객에 눈도장 제대로 찍다 !**

**새로운 충무로 스타 탄생 예고하며 개봉 3주차에도 장기 흥행 질주!**





**세계 7대 소름 끼치는 장소이자, 공포 체험의 성지로 알려진 ‘곤지암 정신병원’에서 7인의 공포 체험단이 겪는 기이하고 섬뜩한 일을 그린 체험 공포 영화 <곤지암>**이 개봉과 동시에 폭발적인 입소문 열풍으로 흥행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컨저링>, <겟 아웃>보다 빠른 속도로 역대 국내 박스오피스 전체 호러 영화 2위 등극이라는 진기록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각양각색의 매력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호러 타임즈‘ 멤버들이 화제다. ‘체험 공포’라는 새로운 장르를 위해 연기는 물론 1인칭 시점 샷까지 직접 촬영해야 했던 배우들은 대부분 첫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연기력으로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주며 단숨에 충무로의 차세대 스타로 발돋움하고 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배우는 ‘호러 타임즈’의 대장 ‘하준’ 역의 위하준 배우다. 위하준은 KBS 주말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에서 얼굴을 알렸으며, 영화 <곤지암>에서 방송 100만 뷰 돌파를 목표로 방송에 가장 큰 의욕을 보이는 캐릭터를 연기해 관객들에게 눈도장을 찍으며 단숨에 차세대 배우로 떠올르고 있다. ‘샤바샤바 귀신’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배우 박지현은 매 상황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행동파 멤버 ‘지현’을 맡아,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새로운 호러퀸으로 등극했다. ‘샤바샤바’, ‘샤브샤브’, ‘밥이 다 되고 밥솥에서 나는 소리’ 등 빙의 소리로 관람객 사이에 화제를 모으고 있다. 또한,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막내 ‘아연’역을 맡은 배우 오아연은 특유의 담담한 말투와 겁 없는 행동으로 반전 매력을 선사하며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드라마, 연극 등 여러 작품으로 활동한 배우 박성훈은 ‘호러 타임즈’의 메인 카메라를 담당한 ‘성훈’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특히, 메인 카메라를 담당해야 했던 역할의 특성 때문에 카메라 촬영 방법부터 새롭게 배워 연습에 매진, 어려운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해냈다. 영화 데뷔작부터 주연을 맡으며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는 신예 문예원과 연극 무대를 위주로 활동해 온 배우 유제윤은 각각 재미교포 출신의 공포 체험 마니아 ‘샬롯’역과 ‘호러 타임즈’의 겁쟁이 맏형 ‘제윤’역을 맡아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영화를 본 관객들은 신인 배우들에 대해 **“시브시브싀비시부시브사뷔수비수비스비”(elfj\*\*\*\*), “지현이 눈깔 뒤집히고 주문 외울 때 졸\* 무서웡”(ppik\*\*\*\*), “배우들이 다 처음 보는 분들이라 별로일 거라는 편견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 점이 더 영화를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ruha\*\*\*\*), “지현이 눈깔 뒤집히면서 이상한 소리 할 때 공포영화 진짜 잘 보는 나도 소름 돋게 만들었다..”(zhdk\*\*\*\*), “샬롯 연기 \*라 잘하더라...”(qkrc\*\*\*\*), “지현아 샤브샤브가 그리 먹고 싶었냐”(dyde\*\*\*\*), “와... 샬롯 진짜 최고의 1분(?) 이다 ㄷㄷㄷㄷ 국산 공포영화 중에 제일 무섭다. 외국에 내놔도 흥행할 듯.. 오늘 잠은 다 잔 듯 ㅠ ㅠ”(w958\*\*\*\*), “지현이 너무 무섭다고 ㅠㅠ”(minj\*\*\*\*), “기담 감독의 새로운 시도, 젊은 감성, 외모 연기 되는 신인배우, 소름 돋는 공포장면. 결말 없는 결말이 더 맘에 든다. 마지막 20분 동안 공포가 관객 목 조르다 절벽에 떨어진 느낌”(mjmj\*\*\*\*)** 등의 역할을 잘 소화해준 배우들에 대한 후기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한편,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위하준과 [미스터 선샤인]의 오아연, 영화 <컨트롤>의 박지현 등 쟁쟁한 차기작들이 방영 및 개봉을 앞두고 있어 차세대 호러킹, 호러퀸으로 등극한 ‘호러 타임즈’ 멤버들의 앞으로의 활약상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영화 <곤지암>은 통통 튀는 신예 배우들의 연기와 매력이 더해지며 정범식 감독의 탄탄한 연출력과 극강의 체험 공포로 개봉 3주차에도 흥행 가도를 달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차세대 스타의 탄생을 예고하며 한국 호러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곤지암>은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  |
| --- |
| **★** **★** **★** **★** **★**  '떡밥' 회수 확실한 新개념 호러  -뉴스1 정유진 기자-  1인칭으로 사실감 끌어올린 공포 체험  -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일반 관객은 물론 해당 장르 마니아 역시 신선하게 즐길 수 있는 작품  -맥스무비 차지수 기자-  한국 공포영화의 가능성을 보고 싶다면 영화 <곤지암>을 보는 것이 좋다  -쿠키뉴스 이준범 기자-  1인칭 체험 공포의 끝판왕. 한국 호러의 새로운 활력  -마이데일리 곽명동 기자-  극한의 ‘공포’ 원한다면 영화 ‘곤지암’과 마주하라  -뉴스토마토 김재범 기자-  "직접 느껴라" 체험 공포 '곤지암', 韓호러물 패러다임 바꾸다  -뉴스핌 장주연 기자-  정범식 감독의 호러 新기원  -헤럴드 POP 안태현 기자-  미치게 무섭다!  한국 호러 역사에 남을 체험 공포의 최고치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호러 콘텐츠를 향한 정범식 감독의 애정과 연구가 느껴지는 작품  -무비스트 박꽃 기자-  보다 현실적이고 생생한 장면들을 통해 흡입력 높은 체험형 공포를 선사한다  -텐아시아 이은진 기자-  은근히 무섭게 ‘한국 호러무비’의 진수 보여주다  -MK 스포츠 안하나 기자-  "'극강 공포' 라이브 호러쇼”  -마이데일리 김나라 기자-  휘몰아치는 공포 장면만으로도 영화표 값이 아깝지 않다  -OSEN 박판석 기자-  호러 장르를 외면했던 젊은 층의 구미를 당길 만한 요소를 곳곳에 채웠다  새로운 한국 공포 장르를 기대하는 관객에게 아주 좋은 선택  -오마이뉴스 이선필 기자-  실제와 판타지를 넘나드는 '新 한국형 호러물' 탄생  -MBN 스타 백융희 기자-  상상 이상의 극강 공포  -TV리포트 김수정 기자-  공포영화의 뻔한 공식 파괴하고 리얼함 살렸다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정말 무섭다"던 소문은 진짜였다  enews24 고수진 기자 |

**Information**

\* 제 목: 곤지암

\* 감 독: 정범식

\* 출 연: 위하준, 박지현, 오아연, 문예원, 박성훈, 이승욱, 유제윤

\* 제공/ 배급: ㈜쇼박스

\* 제 작: ㈜하이브 미디어코프

\* 개 봉: 2018년 3월 28일

\* 등 급: 15세 이상 관람가

**Synopsis**

**공포 체험의 성지 ‘곤지암 정신병원’**

1979년 환자 42명의 집단 자살과 병원장의 실종 이후,

섬뜩한 괴담으로 둘러싸인 곤지암 정신병원으로

공포체험을 떠난 7명의 멤버들

원장실, 집단 치료실, 실험실, 열리지 않는 402호…

괴담의 실체를 담아내기 위해

병원 내부를 촬영하기 시작하던 멤버들에게

상상도 못한 기이하고 공포스러운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기 시작 하는데…

**가지 말라는 곳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소름 끼치는 ‘곤지암 정신병원’ 의 실체를 체험하라!.**